



여름철 피부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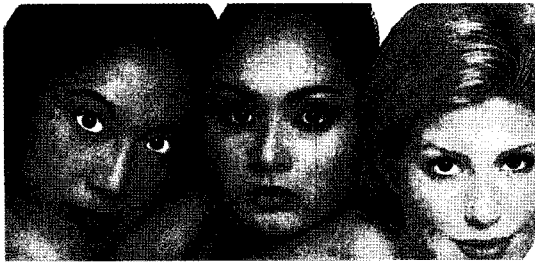
최광호 피부과의원 원장, 종합레이저클리닉 센터

1. 여름이면 더 무서운 액취증

겨드랑이에 땀이 차면 흔히 '암내'로 통하는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다.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포크라인 땀샘은 우리 몸 겨드랑이나 입술, 사타구니, 눈꺼풀, 유두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땀은 배출 당시에는 무균성, 무취성이지만 피부에 기생하는 박테리아가 암모니아 성분으로 분해하면서 역한 냄새를 만드는 데, 특히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액취증이라고 한다.



사람마다 겨드랑이 땀에는 고유의 채취가 묻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특별히 불쾌하지는 않다.

그러나 아포크린선이 지나치게 발달한 사람은 가까이 가기에 꺼려질 정도로 고약한 냄새가 난다.

액취증은 유아기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 아포크라인 땀샘이 활성화되고 분비가 증가된다.

월경이나 임신 등 호르몬의 변화나 감정 등에 의해 그 활동성은 더 증진한다.

따라서 어렸을 때는 암내가 나지 않으나 사춘기

가 되면서 목소리가 변하게 되고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암내가 나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의 10%정도가 액취증이 있으며, 유전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 중 한 사람만 액취증이 있어도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50%나 된다.

보통 백인이나 황인종보다는 흑인이, 겨울보다는 여름에 액취증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액취증에 대한 특효약은 없다. 유일한 치료방법은 수술 뿐, 기존의 수술방법은 아포크린한선을 제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경우에는 출혈과 혈종, 포피손상과 괴사, 흉터 등이 뒤따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달리 최근 개발된 초음파 수술법과 초음파 수술기를 이용해 지방층을 출혈없이 제거하는 것이어서 포피에 흉터가 거의 없고 출혈이나 통증도 별로 없는 편이다.

또한 시술시간도 겨우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수술부위가 1cm정도로 작고 피부주름을 따라 있기 때문에 거의 눈에 잘 띄지 않아 흉터에 신경을 쓰는 여성들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액취증을 줄이기 위한 자가요법으로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샤워를 자주하고, 파우더를 뿌려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살균제가 포함된 약용비누를 사용하거나 항생제연고나 0.3% 농도의 포르말린 희석액을 바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 검은 얼굴의 원인 - '기미, 주근깨'

여름에 악화되기 쉬운 것이 기미, 주근깨 등의 피부질환이다. 여름철에 바닷가나 산에서 휴가를 즐겁게 보낼 때는 몰랐는데 햇볕에 더 검게 되어 울상을 짓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다.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면 자외선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자극시켜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많아져서 검게 보인다.

그런데 기미나 주근깨, 검버섯 등의 검은 색을 띠는 피부색소 질환들은 다른 부위보다도 더욱 검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미나 주근깨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햇볕노출을 피하거나 햇볕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

기미는 다양한 크기의 갈색 색소침착이 태양광선 노출부 특히 얼굴에 발생하는 과색소침착 질환이다. 원인으로서는 자외선 노출, 경구 피임약이나 광과민성 약물의 복용,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확실하지 않다. 이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태양광선이다.

또한 피부를 자극하는 강한 향수나 화장품 등도 좋지 않다.

기미를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피부외용 연고제와 피부박피술 그리고 레이저 치료법이다.

우선 연고제는 피부를 표백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하이드로퀴논제제와 피부각질을 벗겨내어 기미를 완화시키는 비타민A 유도체가 있다.

피부박피술은 인체에 안전한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기미를 제거한다.

사용하는 약물의 농도가 강할수록 효과는 증가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뒤따르기 때문에 낮은 농도로 자주 시술받는 게 좋다.

기미 치료에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다.

레이저 치료는 기미 깊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자칫 잘못하면 일단은 기미가 벗겨져 깨끗하게 보였다가 몇주가 지나면 멜라닌 색소를

형성하는 세포가 자극을 받아 그전보다 더 검게 이차적인 색소침착이 올 수 있다.

반면에 주근깨 치료는 기미처럼 피부를 표백시키는 외용 연고제는 별로 소용이 없다.

주근깨는 현재 규스위치 방식의 레이저 치료가 우수하고 수술 후 흉터가 남지 않아 각광을 받고 있다.

3. 전염성 농가진

전염성 농가진은 어린아이의 머리, 팔, 다리에 주로 발생한다.

처음에는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물질이 생기고 물질이 터져서 진물과 함께 누런색의 딱지를 형성한다.

전염성 농가진은 연쇄상구균에 의해 생기는데 어른에게는 거의 옮지 않고 어린이들끼리 전염이 잘 된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며 손가락, 수건 등에 의해 쉽게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다.

가려워서 손톱으로 긁으면 이곳 저곳으로 쉽게 퍼질 수 있으므로 일단 발병되면 손톱을 짧게 깎고 가급적 환부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수건을 따로 쓰고 비누로 환부를 깨끗이 씻는 것이 좋으나,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는 수영이나 목욕 등은 타부위로 전염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피부병변은 거즈로 덮지 말고 비누로 자주 씻고 항생제 연고를 자주 바른다.

전염성 농가진은 균에 의해서 생기는 전염성 질환이므로 일단 발병되면 피부과에 내원하여 피부병변이 완전 소실된 후에도 하루 이틀 더 치료할 정도로 약 일주일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